

1) ②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체언에 호격 조사가 붙은 '기러기야'는 '기러야'로 적을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따라서 '거북하지'의 준말은 '거북지'이다.

③ 조사를 넣어 부를 수 없는 대상이므로 준말의 표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은 준말은 '그렇잖은'이다.

2) ③ '끈이나 줄 같은 것으로 높은 곳에 목을 걸어 매달다.'라는 의미이거나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다.'라는 뜻의 경우 '목매다'를 써야 한다.

※ 목매다: 기쁨이나 설움 따위의 감정이 북받쳐 솟아올라 그 기운이 목에 엉기어 막히다.

[오답해설]

① 구렛나루→구레나룻, ② 치루다→치르다, ④ 개거품→개거품

3) ④ 버린 도끼가 이 빠진다: 애써서 버린 도끼의 날이 그만 이가 빠져서 팔사남게 되었다는 뜻으로, 공을 들여 잘 장만한 것이 오히려 빨리 못쓰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해설]

① 가을에는 부지깥어도 덤빈다: 가을건이 때에는 일이 많아서 누구나 바빠 나서서 거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남의 다리 굽는다: 1. 기껏 한 일이 결국 남 좋은 일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2.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③ 개구리도 움쳐야 된다: 뛰기를 잘하는 개구리도 뛰기 전에 움츠려야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급하다라도 일을 이루려면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4) ④ 자연 지물명, 인공 축조물명, 문화제명에는 붙임표를 쓰지 않고 붙여 쓴다. 따라서 창경궁의 로마자 표기법은 'Changgyeonggung'이 맞다.

[오답해설]

① Ulleung-do→Ulleungdo: 행정 구역 단위에만 붙임표를 쓴다. 울릉도의 '도(島)'는 행정구역이 아니다.

② Seogguram→Seokguram: '석굴암'은 [석꾸람]으로 발음되므로 'Seokguram'으로 써야 한다.

③ Wangsimri→Wangsimni: '왕십리'는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 [왕십니]로 발음되므로 'Wangsimni'로 써야 한다.

5) ④ →양케트(○): 프랑스어 enquete의 바른 표기는 '양케트'이다.

[오답해설]

① juice의 바른 외래어 표기는 '주스'이다.

② biscuit의 바른 외래어 표기는 '비스킷'이다.

③ chocolate의 바른 외래어 표기는 '초콜릿'이다.

6) ④ '여부(與否)'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생존(生存)은 '살아 있음' 또는 '살아남음'을 뜻하는 말이므로 여부를 붙여 쓸 수 있다.

[오답해설]

①②③ 서로 뜻이 상반된 표현 뒤에 '여부'를 붙이면 의미가 중복되므로 같이 쓰지 않는다.

7) ④ 솟뿔→수뿔: 표준어 규정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8) ④ 해설 동영상 꼭 들어주세요~ 복원 접점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껍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뜻하는 말은 '껍데기'이다.

· 껍데기: 1.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껍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예) 달걀 껍데기, 굴 껍데기

2. 알맹이를 빼내고 껍에 남은 물질
예) 이불 껍데기, 피자 껍데기

· 껍질: 물체의 껍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을 이르는 말이다.

예) 굴의 껍질, 양파의 껍질, 사과 껍질

[오답해설]

① → ~만족스러운, ② → ~덜 편찮으신가 보다, ③ → ~활짝 겐

* ②에 대한 추가 설명: '편찮으시다' VS '아프시다'

'몸'에 대해서는 '편찮으시다'를 쓰는 것이 맞으므로 '몸이 편찮으시다'가 맞고 '몸이 아프시다'는 틀립니다. 반면 '팔이 편찮으시다'와 '팔이 아프시다'의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찮으시다'가 '아프다'의 높임말인 것은 맞지만 이는 '병을 앓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고, '통증'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아프시다'도 가능합니다. 즉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할아버지께서는 관절염 때문에 팔이 편찮으

시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고, 단지 통증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팔에 멍이 든 것을 보니까 많이 아프실 것 같다.'와 같이 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몸'에 대해서는 '편찮으시다'를 쓰는 것이 맞고, '몸의 일부'에 대해서는 아픈 것이 병을 앓는 차원인 경우에는 '편찮으시다'를, 통증을 느끼는 차원인 경우에는 '아프시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수험생들의 복원을 보면 ④가 명백히 답이므로, ②를 위 정점에 따라 '편찮으시다'가 더 적절한 상황으로 출제했다고 추론하였습니다. 다만, '팔이'가 없다면 더 명백하게 '편찮으시다'가 바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복원에 의문이 있습니다.

9) ④ → 뿔V뿔이: 관형어 '뿔'의 수식을 받는 '뿔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해설]

①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쓰므로 '홍길동 님'이 맞다.

②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하므로 '깨뜨려 버렸다'가 원칙이고, '깨뜨려버렸다'도 허용한다.

③ '등'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10) ① →무

[오답해설]

② '이쁘다'는 '예쁘다'와 뜻이 같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2015 개정)

③ '귀발개발', '개발새발' 모두 표준어이다.

④ '남사스럽다'와 '남우세스럽다' 모두 표준어이다.

11) ② ㉠과 ㉡은 다의 관계이다.

㉠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밀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과 ㉡은 동음이의 관계이다.

① ㉠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 계절(季節)

③ ㉠ 마음이 몹시 달다
㉡ 부끄러움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

④ ㉠ 작 달라붙지 않아 틈이 생긴다.

㉡ 누룩이나 메주 따위가 발효하다.

12) ④ 닭 쫓던 개 지붕: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쩔 줄 몰라 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닭 쫓던 개 지붕(뎌 산) 쳐다보듯 [오답해설]

① 병어리 제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귀가 절기다: 1. 둔하여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2. 말을 씩씩하게 잘 듣지 않고 끈덕지다.

③ 배알이 뒤틀리다[폴리다]: 비위에 거슬러 아니꼬움을 이르는 말이다.

13) ④ '하소연'은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털어놓고 말하거나 간곡히 호소함'을 뜻하는 고유어이다.

[오답해설]

① 빈티지(vintage): 특정 연도-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 또는 그런 포도주의 생산 연도

② 이간질(離間-): 두 사람이나 나라 따위의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것

③ 파렴치(破廉恥): 염치를 모르고 뻔뻔스러움

14) ③ 제시문은 핵심을 벗어나 지엽적인 상황을 확대하여 문제 삼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일의 근본 줄기는 잇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힘'을 뜻하는 본말전도(本末顛倒)가 제시문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가장 일치한다. [오답해설]

① 계옥지탄(桂玉之嘆): 식량 구하기가 계수나무 구하듯이 어렵고, 땀감을 구하기가 옥을 구하기만큼이나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조국이 망한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매우 위급함을 이르는 말이다.

15)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실제 어부의 노래는 아니라는 점에서 ②번 논란이 있으나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라는 후렴이 '찌그땡 찌그땡 어어차' 하는 노 젓는 소리의 음자라는 점에서 ③을 정답으로 보는 것이 옳다!

16) ④ (다)(나)(가)(라)

- (가) 1967년, 신동엽, 꺾테기는 가라
- (나) 1958년, 김춘수, 꽃
- (다) 1930년, 정지용, 유리창
- (라) 1995년, 정현종, 세상의 나무들

17)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8)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9)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20)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21)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22)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23) 2016 개정으로 정답이 없어짐

① → 예전에는 ‘말하고 있는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를 뜻하는 부사 ‘이제야’를 썼으나 ‘이제서야’도 가능해졌다.

[오답해설]

③ ‘서야’는 ‘에서야’의 준말이다.

④ ‘에야’는 시간·공간상의 일정한 범위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에’에 보조사 ‘야’가 결합한 말이다.

24) ② 指令(손가락 지, 영 령): 1. 지휘명령 2. 단체 따위에서 상부로부터 하부 또는 소속원에게 그 활동 방침에 대하여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오답해설]

① 反響(돌이킬 반, 울릴 향):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반응

③ 詭辯(속일 궤, 말 잘한 변):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

④ 一抔(한 일, 아침 단): 우선 먼저, 우선 잠깐, 만일에 한번

25) ② or ③ **해설 동영상 꼭 들어주세요~ 복원 째쩍**

제시문은 <산성일기>로 병자호란 당시의 일을 기록한 한글 일기체 작품이다. 어느 궁녀가 지었다는 설이 있다. 서간체(편지)가 아니라 일기체라서 ②가 답으로 보이나 제시된 부분이 사실적인 사건 전개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감정에 초점을 두고 서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산성일기>는 전체적으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전쟁의 기록적 수필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따라서 ③도 답안의 여지가 있다.

혹시 ‘일기체’를 ‘서간체’라고 복원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